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가짜 세상

김 성 종
작가·추리문학관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지(無知)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다.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려들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은 유식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휘저으려고 든다. 그 결과 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가짜들이다. 가짜는 가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 물건들이 범람하고 있다.

가짜 인물군과 가짜 물건들은 서로 한 통속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그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해악은 견고한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며칠 전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오사카에 돌아다니는 한국인 여성들은 거의가 창녀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발언,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일본에는 현재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 위조 여권, 위장 결혼 등으로 밀입국하여 단기간 내에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고 있다. 한국 여성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는 일본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전세계에 거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모두가 가짜 서류, 가짜 여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해주는 것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은 한 편에 500만 원, 박사학위 논문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공정가격을 매겨놓고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가짜 논문을 써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배출된 석박사가 줄잡아 수백 명은 된다고 하니 그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 계산해보면 어머어마한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양산된 가짜 석박사들이 성스러운 캠퍼스에 우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그런 가짜들한테서 학문을 배운 대학생들의 실력이 오죽하겠는가.

그런 행태는 해외유학파라고 다르지 않다. 신정아 사건이 말해주듯 외국에서 가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수 행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격증도 없는 가짜 의사들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있어도 가짜나 다름없는 엉터리 의사들도 수두룩하다. 해마다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쏟아져나오다 보니 실력은 뒷전이고, 돈벌이에 급급해서 인간 생명을 상품처럼 주물러 댄다. 얼굴을 망쳐놓은 가짜 성형외과 의사, 관절과 척추를 멋대로 수술해서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놓은 정형외과 의사,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마구잡이로 떼주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비리 의사 등.

여대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도록 사주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기업체 사장의 부인이 의사가 떼어준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서 교도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왔다는 사실은 가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원전의 부속품들이 가짜라는 사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가짜가 많은 것을 보면 원전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한다. 열을 이기지 못해 원전이 폭발이라도 할 경우 부산·울산·포항을 포함한 경상도 일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게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문화 쪽을 들여다봐도 가짜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돈만 주면 무슨 무슨 강사 자격증을 남발하고, 돈만 주면 문예지에 시·수필 따위를 실어주고, 그때부터 당사자는 평생 동안 시인, 수필가로 행세한다. 시인, 수필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가짜가 가장 숨어있기 좋은 곳은 정치판이다. 당선만 되면 가짜가 덮여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가짜 실력을 얼마든지 발휘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가짜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려고 기를 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자각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우리는 적어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료칼럼

여름이 무서운 남자들(여성형 유방증)

이 상 혁
SM美성형외과 원장

"저는 가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쳐다보는 눈이 많아 수영장은 물론 대중 목욕탕도 웬만해서는 가지 않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커요."

언뜻 보기에 가슴이 작아 고민하는 여성의 심정 같지만, 실은 여성의 것처럼 튀어나와 창피한 마음에 고민하는 남성의 괴로운 심정이다.

현대사회의 서구화된 식생활, 비만인구의 증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증상은 전문용어로 여성형유방증(Gynecomastia)인데, 줄여서 '여유증'이라 부르기도 한다. 아직까진 우리에겐 생소한 질환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다. 이중 10대와 20대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신경적으로 예민한 이들에게 여유증은 학업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심하면 자신감 상실, 대인기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홀로 고민보다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여유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비만과 운동부족, 간이나 내분비 질환, 약물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비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으로 비대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생겼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법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여유증으로 의심될 경우 ▲남보다 유난히 가슴이 발달돼 있다 ▲20세가 지났는데도 가슴이 볼록 나왔다 ▲다이어트 했을 때 가슴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가슴을 만졌을 때 멍울이 만져진다 ▲가슴 때문에 얇은 옷 입는 것이 꺼려진다 등 5개 항목 중 해당사항이 4개 이상이면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가슴으로 고민하는 것이 여성만은 아니다. 남자들의 가슴 고민은 신장이나 얼굴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특히 얇은 티셔츠 등 옷을 가볍게 입는 여름이 다가오면 여성형 유방을 가진 남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여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다이어트와 운동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가슴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수술이라고 하면 부담을 먼저 느끼는 남성들이 많은데, 여유증 수술은 해당부위에 최소 절개를 한 후 불필요한 지방 및 유선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소 절개를 하는 만큼 출혈과 통증도 적고, 그만큼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른데다가 안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유선이 과도하게 발달한 진성 여성형 유방은 약물복용이나 갑상선·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지방과 함께 유선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여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성 여성형 유방은 유선의 양은 정상이지만 유선 주위에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경우다. 이 경우는 간단한 지방흡입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며 한 달 정도 심한 운동만 삼가고 조심한다면 그 이후에는 멋진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운동도 가능하다.

남들과 다른 가슴 때문에 쉬쉬하고 숨기려 든다면 여유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여성형 유방증이 의심되거나 스트레스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기고

협동조합의 새 시대 가치·원칙 충실해야

송 광 운
광주시 북구청장

이탈리아 볼로냐는 유럽에서 '협동조합의 수도'로 불린다. 이곳 주민들은 "시장에 간다"는 말 대신 협동조합을 뜻하는 "콥(coop)에 간다"고 말한다. 이곳에도 체인형 대형 마트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지만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구입을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동조합 마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 수 38만 명인 볼로냐엔 무려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다. 대기업이 한 곳도 없는 볼로냐는 유럽연합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에 속한다. 지역경제는 물론 일상생활과 밀착된 볼로냐 협동조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금융의 쓰나미로 불리는 경제위기 속에 수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협동조합에서는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없었다. 평등의 기초 위에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협동조합 정신이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 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전국에서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는 올해만 3000여개, 2015년까지 9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누구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 다섯 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노동자·중소상인·농어업인 등 금융보험업분야만 제외하면 생산·판매·유통·구매·소비는 물론 교육·주택·건축·의료·여행·관광·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북구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34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올해 목표는 50개. 북구는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주·자립·자치기반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앞으로 3년 동안 협동조합 정책기반구축, 교육홍보강화, 기존정책과 연계로 효과제고, 협동조합정책네트워크구축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수립 추진한다.

우선 올해 사업으로 북구협동조합지원조례제정과 북구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북구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 완료했다. 이달부턴 협동조합 모델개발을 위한 협동조합 TF팀 구성운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홍보, 컨설팅지원에 나선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모여 설립하고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경제사업체면서 사회적 활동도 추구한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 사회 공헌이 최고의 목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간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합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가치와 원칙에 충실한 협동조합은 건강하고 착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낸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따라서 과실은 조합원이나 지역사회에 골고루 분배된다.

일자리창출효과도 높다. 이미 유럽의 앞선 협동조합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아무리 협동조합이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노력과 열정이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피서철 타인 배려하는 행락문화 정착돼야

주말과 공휴일에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 산, 바다 등 유원지를 찾는다. 최근 가족과 함께 시골에 다녀와 느낌점을 몇 자 적어보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행락 문화는 매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양심적인 시민들만 늘어가는 거 같아 안타깝다.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차선을 바꾸는 사람, 버스 전용도로를 그냥 마구 달리는 사람, 차를 냇가에 주차해 놓고 세차를 하는 사람 등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또 음주 가무를 서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바람에 곳곳에 악취가 진동한다.

더구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불쑥불쑥 달려나와 시민들 일행끼리 장난하는 모양이지만 운전자는 순간 놀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곧 있으면 피서철도 다가오는데 이제 행락문화도 변해야 한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바다로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락 문화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수정·광주시 동구 서석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박 정부, 지역 핵심공약마저 홀대할 건가

박근혜 정부가 내건 전남지역 핵심공약인 '동서통합지대'와 '10+α 중추 도시권 육성사업'이 구체적인 밑그림이나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계획을 세우라"는 식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인사에 이은 또 다른 홀대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는 최근 섬진강 양안에 전남 동부·경남 서부지역을 개발하는 동서통합지대 중 호남 권역의 기본 구상을 짜는 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짠 뒤 오는 10월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남도가 자체 예산을 들여 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전남도와 경남도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간 교류 촉진을 위해 한려대교와 목포~부산 KTX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권에서 지방발전책으로 '5+2 광역 경제권'을 내놓았다가 사실상 흐지부지 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α'는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역 거점 도시권 10~20개를 집중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광주·전남으로선 불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약점인 인구 비중에 따라 지원 권역을 구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공약은 '5+2 광역 경제권'의 재판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예산 지원 약속과 밑그림이 없는 데다 인구 비중 등을 기준으로 하고, SOC마저 제외시킨다면 알맹이 없는 무늬만 공약이 될 게 뻔하다.

정부가 지역 낙후도와 SOC를 배제한 채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갈수록 심해지는 호남 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막가는 패륜 10대들 사회적 책임 크다

순천과 광주에서 중·고생들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희롱하는 동영상을 찍거나, 묻지마 폭행까지 휘둘렀다고 한다. 믿기지 않은 소식에 시민들의 충격은 크다. 일부 비행 청소년들의 행동이라지만 힘없는 노인을 돌보기는커녕 패륜을 저질렀다니 학교와 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순천에서 일어난 노인 희롱사건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들이 반성 차원에서 봉사활동 중 벌인 일이어서 황당할 따름이다.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감독교사 없이 겉치레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 측의 안이한 태도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는 길 가던 할머니가 중학생에게 '묻지마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할머니가 쓰러지자 구호하려는 생각은 접어둔 채 도주했다. 할머니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 주변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단면이 두려울 따름이다.

두 사건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다시금 돌아 보게 한다. 비행 학생들도 가정에 나이 든 할머니가 있었을 텐데 과연 자신의 가족이었으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을지 묻고 싶다.

노인 희롱에 가담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곧바로 사과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기로 했다지만 그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 문제 학생들 역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문제는 사후처리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들이 패륜 범죄까지 서슴지 않은 데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 널려 있는 유해환경과 학내, 가정에서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과 학교, 사회관련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품성을 지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사과의 기술

최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임찬규 선수가 '세리머니'로 한 물벼락이 정인영 아나운서에게 쏟아졌다. 사건 후 해당 중계 방송사인 KBS N 스포츠 담당 PD는 트위터에 야구선수들 인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고, 다음날에는 KBS N 편성제작팀장이 LG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 보이콧을 선언했다.

프로야구 선수협도 사과를 했다. 사과문엔 "전체 야구 선수들과 야구인들을 매도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중략)"는 표현을 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선수의 지나친 세리머니가 야구계와 방송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임찬규다. 임 선수와 LG 측이 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한 사과로 쿨하게 정리되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집단이기주의 모습까지 비춰 질 일이 아니다.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만 키우게 된 셈이다. 750만 관중 돌파를 꿈꾸는 선수, 구단, 방송사들이 진정 팬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배우 김혜수는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까지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죄를 한 것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임찬규 선수와 방송사, 선수협, 구단, KBO 등 야구 관계자들은 배우 김혜수가 행한 변명 없는 사과를 배워야 한다. 스포츠 맨십을 강조하는 스포츠계로선 부끄러운 일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